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변형임

12/23 월요일

아침의 누림

행 26:18

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골 1:13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창 1:26

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마 12:26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요일 3:4

4 죄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마다 불법을 일삼는데, 죄는 불법입니다.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 14:12-15 (Read only)

12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어찌하여 잘려 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13 너는 네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15 그러나 너는 스올로,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리라.

우주 가운데에는 두 가지 큰일, 곧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것과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정의가 바로 불법임을 보여 준다(요일 3:4). ...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죄이다.

우주 안에는 두 원칙, 곧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 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역의 영을 가지고 반역의 길을 취할 수 없다. 반역적인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라도 그의 말 속에 사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비웃을 것이다. 봉사는 늘 권위를 향하고 섬기는 것이다. ...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권위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일단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고 그분의 권위에 의해 깨뜨려지면, 빛이 비치어 그의 눈이 열릴 것이다. ... 그는 누가 불법적인 사람이고 누가 불법적인 사람이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1 장, 148-14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사야서 14 장은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자기 보좌를 높이기 원했음을 보여 준다(13 절). 이것은 사탄의 의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그의 의도는 우주 가운데 자신의 보좌를 세우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 예수님은 두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28 절)과 사탄의 왕국(26 절)을 언급하신다. ... 우주 안에는 두 왕국이 있다. ... 한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기 위해 그분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고 계시고, 다른 왕국에서는 사탄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고 있다.

권위의 문제는 성경의 시작부터 언급된다. 창세기 1 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다와 공중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통치할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26 절).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탈취한 방법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게 한 것, 즉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게 한 것이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단지 어떤 규칙 하나를 위반한 것이 아니었다. 더더욱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었다. 사탄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신 피조물은 천사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천사장이 많은 천사들을 주도하여 반역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도 반역했다.(믿는 이들에게 왕국이란 무엇인가, 3 장, 59-60 쪽)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이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지기를 원하셨지만, 이 두 부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했다. ...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거두어들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들이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그분의 권위의 체계를 거두어들이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가 있는 곳마다 으뜸의 위치를 얻으신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권위의 체계를 유지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반역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반역이 단지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마 4:17, 막 1:15).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 역시 반역했다.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가? ...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의 근거는 전적으로 복종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와 대립하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고,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완전한 복종 가운데, 즉 하나님의 권위와의 완전한 협력 가운데 수행되었다. ... 오늘날 교회 또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자유롭게 통행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6 장, 19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7 권, 권위와 순복(상), 1, 3, 6, 9-11 장

12/24 화요일

아침의 누림

마 6:10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 12:28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막 3:27

27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할 수 없으니,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마 4:17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 6:33

33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요 3:3,5

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엢 2:19

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왕국을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영역 혹은 범위라고 말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그의 왕국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에게 어떤 영역 혹은 범위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왕국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영역이다.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의 목표를 성취하시는 영역이자 범위이다.(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 12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늘들과 땅과 수억만의 항목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중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방면에서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다. ‘통치권’이란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범위 내에서의 권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치권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있다. ...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은 그분의 왕국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없게 되자, 육체 되심을 통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육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실 수 있는 영역을 세우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왕국이 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이다(마 6:10). 이것은 또한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고 사탄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대적한다.

마가복음 3 장 26 절에서 주님은 만일 '사탄도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갈라진다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고 지적하신다. ... 3 장 27 절에서 '살림살이'는 사탄의 왕국을 위해 사탄의 집에 갇힌 죄인들이다. 노예-구주는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을 강탈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요 3:5)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엡 2:19)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다. 노예-구주는 복음 봉사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계셨다(막 3:27). 복음 봉사는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전쟁이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주님께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계셨던 목적은 그의 집을 강탈하여 그의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분의 전파는 일종의 강탈이었다. 사탄은 모든 죄인들을 사로잡아 감옥인 그의 집 안에 가두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사탄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영의 능력을 가지신 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즉, 사탄의 집을 강탈하시고 사탄의 포로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사탄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계셨다. ... 주님은 그분 자신의 능력이나 강함이나 힘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반대로 그분은 모든 것을 성령에 의해 하셨다. 특별히 그분은 성령에 의해 사탄의 집을 강탈하시고 그의 왕국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12 장 28 절은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어 사탄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계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고 계셨음을 보여 준다. ... 하나님의 영께서 권세를 잡으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곳에는 귀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 129-131 쪽, 메시지 12, 122-12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59 권, 고령 훈련 기록(1), 12, 14-15, 18, 20-21 장

12/25 수요일

아침의 누림

막 4:35-41 (39)

35 그날 저녁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으로 건너갑시다.”라고 하셨다.

36 제자들이 무리를 남겨 두고, 예수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데,

37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어느새 배에 물이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자,

39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조용히 하여라! 잠잠하여라!”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40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겁을 내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으십니까?”라고 하시니,

41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과연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합니까?”

엡 6:12

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요 12:31

31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4 장은 왕국의 씨 곧 왕국의 유전자와 그것의 완전한 발전에 관한 놀라운 장이다. ... 아마도 여러분은 마가복음 4 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왕국의 비유가 있는 4 장 1 절부터 34 절까지와 부합되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먼저 마가복음 4 장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한다. 왕국에 관한 기록에 이어서 바로 반역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37 절은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쳤다고 말한다. 이것은 반역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마가복음 4 장의 시작에는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반역이 정복당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발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의 관점에서 왕국은 반역이 정복당하는 것이다.(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 163-16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탄에게는 집이 있을 뿐 아니라 왕국이 있다(막 3:23-25). 그의 집은 죄의 집이며(요일 3:8, 10), 그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이다(골 1:13). 죄인들은 사탄의 집과 사탄의 왕국 둘 다에 속해 있다. 귀신들은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으며 사탄의 왕국을 위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요 12:31) 공중 권세의 통치자이다(엡 2:2). 사탄에게는 그의 권세(행 26:18)와 그의 천사들이 있는데(마 25:41), 그의 천사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로서 그의 부하들이다(엡 6:12). 따라서 그에게는 어둠의 권세인 그의 왕국이 있다(골 1:13).

노예-구주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에 즉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맞은편으로 건너갑시다.”(막 4:35)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반역자인 사탄은 공중의 천사들과 물속에 있는 귀신들을 이용하여 반역을 선동했다. 이러한 이유로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어느새 배에 물이 차게 되었다’(막 4:37). 이 큰 폭풍 때문에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태운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제자들이 노예-구주를 따르는 동안 그분은 신성한 권위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협하는 폭풍을 통제하셨다(막 4:39).

노예-구주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해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람 가운데에는 타락한 사탄의 천사들이 있었고(엡 6:12), 바닷속에는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마 8:32). 공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물속에 있는 귀신들이 힘을 합쳐 주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께서 그곳에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막 5:1-20).

주님은 그 천사들과 귀신들이 폭풍을 일으킨 목적이 그분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좌절시키어 군단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시도록 하려는 것임을 아셨다. 주님께서 그 군단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것은 곧 왕국이 오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4 장에서 주님께서 왕국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보고, 5 장에서는 그분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왕국을 가져오셨음을 볼 수 있다. 왕국에 관한 말씀과 왕국을 가져오는 것 사이에 바다에 폭풍이 부는 사건이 나온다.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신 후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다. 그것은 공중에 있는 악한 천사들과 물속에 있는 귀신들의 반역이 정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 장 35 절부터 41 절까지에서 우리는 왕국이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임을 본다.

마가복음 4 장의 사건이 배열된 순서는 의미심장하다. 왕국이 계시된 후에 우리는 즉시 반역이 정복당하는 장면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122 쪽, 메시지 17, 164-16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12-13, 16-17, 19, 25, 64, 66; 성경에 있는 10 가지 노선, 6, 10 장

12/26 목요일

아침의 누림

막 9:1-2, 3-4

1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2 육 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 되셨는데,

3 그분의 겉옷은 세상의 어떤 세탁공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4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니,

막 4:26-29

26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27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가 싹트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잎사귀이고,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다음에는 이삭에 꼭 찬 낱알입니다.

29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대는데, 왜냐하면 수확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변형은 왕국이 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왕국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 왕국은 바로 변형되신 한 사람이다.

우리는 자신이 체험한 빛 가운데에서 왕국이 다름 아닌 주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이러한 이해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 ... 토양이 받아들인 씨가 아직 변형되지 않은 씨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험에서 변형되지 않으신 그리스도였다. 씨가 변형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씨가 성숙한 식물로 자라고 그런 다음 그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인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자라시어 결국 우리 안에서부터 꽃 피실 필요가 있다.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6, 56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토양이고 주 예수님은 왕국의 씨이다. ...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강하게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변형되셨는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아직 변형되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이와 같은 변형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꽃 피실 때까지 자라셔야 한다. 이렇게 꽃 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변형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형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변형되실 때, 이 변형은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이 왕국은 우리를 통치하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누림을 줄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주님께서 변형되신 이 이야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변형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체험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주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그분은 아직 우리 안에서 변형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결국 변형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표현으로 꽃 피셔야 한다.

마가복음 1 장 15 절에서 주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씨의 비유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4:26)라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9 장 1 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왕국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주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다. ...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상 주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것을 강하게 가리킨다.

오늘날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변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매우 많은 믿는 이들 안에 사시지만 여전히 씨이다. 그분은 아직 변형되지 않으셨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상황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우리 안에 주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께 우리 안에서 변형될 기회를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왕국의 씨만 있을 뿐 왕국의 나타남이 없다.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날 왕국의 임함, 즉 왕국의 나타남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왕국이 나타나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변형되시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음을 본다.

오늘날 이와 같은 변형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생활이 산출된다.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6, 561-56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믿는 이들에게 왕국이란 무엇인가, 2-6, 8 장; 윌트니스 리 전집, 1972년, 2권, 왕국, 2 장

12/27 금요일

아침의 누림

막 8:35-36, 37-38

3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38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에게 대해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마 16:25-27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 14:17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서 주 예수님은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건축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답은 21 절부터 26 절까지에서 발견된다. ...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건축하실 수 없다. ... 마태복음 16 장 21 절은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삼 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시작하시니”라고 말한다. 이 절은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 죽음과 부활임을 보여 준다. ... 부활은 변형의 한 형태이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변형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 교회는 이 변형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 교회는 타고난 생명이나 육체에 속한 사람들 안에 존재할 수 없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4 장, 119-12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혼을 잃는 것은 우리가 함께 건축되는 데 있어서 기본 요인이다. 건축을 위한 기본 요인은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것일 뿐 아니라 혼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현재의 혼적인 누림을 모두 잃어야 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혼을 기꺼이 잃는다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 비춤을 얻고, 영양 공급을 받으며,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건축되는 길이다.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혼을 잃는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 있겠는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심지어 용서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다면, 유력한 변형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형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교회생활은 어둠이 될 것이고, 변형의 기간동안 우리는 고난을 형벌로 받을 것이다. 기쁨이 넘치는 대신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혼을 잃는다면 교회는 변형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부흥이 올 것이다. 모든 참된 부흥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 함께 현재 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긍정적으로는 신실한 이들에게 보상하시고, 부정적으로는 신실하지 않은 이들을 벌하신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생활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부흥 즉 변형이 왔을 때 어떤 이들은 누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고 있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다툼하는 이유는 이길 때 그 나름의 누림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 그러나 어떤 형제가 아내가 이기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주님은 어느 순간에 오셔서 그의 혼을 구원하시므로써 그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때가 혼이 누림을 가질 때이다. ... 혼을

잃지 않는다면 합당한 가정생활이 있을 수 없다. 가정을 위해 우리는 자신의 누림을 잃어야 한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이것은 교회생활에서도 동일하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혼을 잃는 것, 곧 혼적인 누림을 잃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혼을 잃을 때 변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변형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상을 받고, 주님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실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5 장, 141-142, 144-145 쪽)

우리가 혼생명을 잃을 때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혼이 변화되도록 (롬 12:2, 고후 3:18)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 혼의 각 부분으로 확장되실 기회를 얻으실 것이다. 결국 우리 온 존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롬 8:29). 이러한 때가 오면 우리는 성숙되고 그분과 함께 공동왕들이 될 준비가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오는 시대에 그분의 왕권을 누리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마 25:21, 딤후 2:12 상, 계 3:21, 20:4, 6).(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 년, 3 권, 히브리서에 있는 중요한 요점들에 대한 기록, 7 장, 1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3, 5 장

12/28 토요일

아침의 누림**마 13:43**

43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빌 3:21

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 16:27

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후 1:9

9 그들은 주님의 임재에서와 그분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롬 8:18, 21

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21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히 2:10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이 바로 그분께서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임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깨닫지 못한다. ... 주님의 오심은 갑자기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돌아오실 것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에게서 나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그분 자신을 온전히 살아 내실 때가 그분께서 오시는 때일 것이다. 마태복음 17 장 1 절과 2 절 그리고 16 장 28 절에 따르면, 그분의 오심은 그분의 변형이었고, 그분의 변형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이었다. 그분은 변형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49, 1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인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육체를 입었다. 그분은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분이셨다.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 안에 숨겨져 있었다. 외적으로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내적으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감추어지고 포함되고 숨겨져 계셨다. 영광은 나타나신 하나님,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 예수님의 인성 안에 감추어져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영광이셨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신성한 요소가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을 때, 아무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볼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고 그분께서 비범한 분이심을 깨달았지만, 그분께서 변형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가장 친밀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주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되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변형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이며, 그분께서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이 그분의 변형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가리킨다. ... 왕국이 오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 곧 그분의 변형이며,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 주님은 변형되셨기 때문에 지금 영광 안에 계신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셨지만,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 않았다. 그분께서 변형되실 때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성으로 온전히 적셔졌다. 장차 올 왕국의 출현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와 같으실 것이다. 그분은 참으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신 그리스도이실 것이지만,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으로 흠뻑 적셔져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안에는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타고난 인성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고 거룩하다 해도 우리의 인성은 여전히 타고난 인성이다. 우리의 인성은 아직 신성한 영광으로 적셔지지 않았다. 그러나 왕국이 출현할 때, 우리의 인성은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신성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마도 반대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진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광스럽게 됨이다. 반대자들은 로마서 8 장 30 절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그것은 밖에서 부터가 아닌 안에서부터 변형되는 것이다. 어느 날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를 보고 매우 놀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 장 10 절은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며, 또 사람들은 모든 믿는 이... 안에 계신 분을 놀라운 분으로 여길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것을 보고 무척 놀랄 것이다. ... 그들이 우리와 그들 사이의 영광스러운 차이를 보게 될 날이 오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인성이 신성으로 적셔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영적이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국이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49, 18-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7

추가로 읽을 말씀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 26

12/29 주일

아침의 누림

계 22:1-7

-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 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참됩니다. 주님, 곧 신언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 7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찬송: 941 (英) 하나님의 권세의 영역인 (中:745)

- 1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인 왕국은 그 질서 건축하는 주권의 다스림 주 하나님의 왕권 행사되는 왕국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 2 왕국의 중심 보좌 하나님 좌정해 그 마음 갈망 따라 모든 것 다스려 왕이신 하나님이 머리와 주 되니 다 자기 위치에서 제 궤도 지키네.
- 3 하나님 다스려서 그분 뜻 행사해 그 권위 아래 주 뜻 이루어가시네 보좌로부터 주의 생명 강 흘러가 하나님 왕국 안에 축복 넘치도다.
- 4 그 통치 아래에서 축복을 받도다 그 주권 거스림이 최악의 뿌리니 늘 주의 보좌 엮는 사탄 물리치고 하나님 권위 아래 살기만 원하네.
- 5 하나님 왕국 안에 주 확대되겠네 주 생명의 다스림 하나님 자랑 돼 주 통치 실시할 때 다 축복 받으리 주 하나님의 영광 다 나타나겠네.
- 6 때 차면 주 안에서 만물이 하나 돼 주 왕권 인정하고 그 통치 받으리 생명의 통치 먼저 교회가 맞볼 때 만물도 그 누림을 고대하고 원해.